

목회의 프락



정용영 목사
청풍은성교회 담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 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무더운 여름의 뜨거운 공기가 싫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을의 차가운 공기를 맞이하니 벌써 뜨거운 공기가 그리워지게 됩니다. 계절마다 가지고 있는 운치가 있는데 가을은 진한 단풍이 그 맛을 더해 줍니다. 그 맛을 즐기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야

그것을 모르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를 향한 불안함이 항상 우리의 오늘을 누리는 것에 대한 장애로 남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오늘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부족함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풍은 버리는 것에 대한 아픔 다음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하려 내 삶의 이유였던 것 전부였던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누림보다 버림!

합니다.

단풍이 다 지기 전에 눈에 담고 싶으면 산에 오르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지 않은 시간에 계절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단풍이 더 진하게 물들어 있을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단풍이 주는 맛을 느끼기 위해 산을 오른 몇 주 후에 단풍이 더 진하게 물들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의 오늘도 최고요.

몇 주가 지난 오늘도 최고요.

앞이 다 저버린 나목도 아름다운 감성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오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포기의 연속이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는 포기의 절정이었습니다.

포기할 것과 포기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멋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신앙은 누림보다 버림이며 채움보다 비움이며 소유보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수 감사절이 가정에 대한 누림보다 버림을, 포기를 통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풍성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오늘이 최고의 날로 풍성함을 안겨주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도서

저자 : 최상규 | 출판사 : 규장



선한올타리 작은 손길들이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올타리

아프고 지치던 젊은 날이
외로운 청년들을 향한 공황이 되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올타리가 되어줄 선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10년의 헌신, 그 시작과 기적의 이야기

[출판사 서평]
자립준비청년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선한올타리의 섬김
고난으로 준비된 위로자가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는 따스하고 든든한 올타리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그런 명칭조차 없던 10년 전, '만 18세 보육원 퇴소생' 기사에 마음 아파하며 작으나마 기도와 행동을 시작한 이가 있다. 혼자라면 얼마 가지 못했을 그 일은 사람들과 협력하며 교회의 사역이 되고 다른 교회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며 제도 마련과 개선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선한올타리와 그 설립자 겸 자비량 사역자인 최상규 대표의 이야기다.

저자의 유년부터 청년 시절은 가정폭력과 가난, 불의의 사고 등 버겁고 눈물겨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그와 비슷한 아픔을 지닌

자립준비청년들을 깊이 이해하며 돕는 사명자로 그를 부르고 준비시키는 풀무불과도 같았다. 이 책에는 이렇듯 상처가 사명이 된 저자의 스토리를 비롯해, 공황을 품은 성도들과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온 과정과 그 가운데 맞은 기쁨과 어려움이 담겼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나라의 올타리를 함께 세워가고 싶은 분,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던 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분에게 간곡히 추천한다.



김구원 저음 / 홍성사 펴냄

10월의 중순을 넘어 11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까지 더위의 기세는 물러날 줄 몰랐지만, 이제는 시원한 날씨를 넘어서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날씨로 변화하고 있다. 평년과는 다른 다소 의외의 상황에 우리는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다. 가을이 되면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상투적인 말들을 자주 들었을 텐데 이번 해는 의외의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된다. 오늘 소개 하는 책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며 전혀 고려해보지 못했던 의외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다.

"구약, 다소 의외의 메시지"는 구약성경을 읽으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바꾸는 성경 읽기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인 김구원 박사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미국 웨스트민

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시카고대학교 고대근동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반인과 평신도에게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 문화를 가르치고 소개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이에 관련된 영문 및 우리말 단행본과 논문도 다수 출간했다.

책은 총 22개의 구약의 장면들을 보여주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해석의 관점과는 다른 다소 의외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면 2장의 예뻐 동산에서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은 짐승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형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뻐 동산에서 비록 추방당했지만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내용은 8장의 위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서 욕의 친구들에게는 결국 욕이 한 말이 거슬렸다. 그 말이 너무 이교도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담은 것이어서 그 말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친구들이 '지혜자'라는 사실과도 관계 있다. 그들은 '가치와 도덕'의 신생물이다. 즉 오늘날의 목사나 신학 교수처럼 가르치며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오해하는 순간 구약의 진면목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구약을 읽으며 때로는 질문하며 때로는 서로의 의견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설적인 변화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구약, 다소 의외의 메시지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 도구 사용 능력, 기타 다른 신체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의 뱀도 가지고 있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과 관련 있다. 동물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지만, 인간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의 통로는 그의 '박'에서 들려오는 말씀이다. 인간도 동물인지만 때로는 본능이 하나님 뜻의 통로 때도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욕망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욕망과 본능을 넘어서 수 있을 때 인간

'바른 신학'이 중요하다. 욕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단진 말이 그들의 바른 신학에 위배될 때, 그들은 상처받는다. 때로 상처는 분노로 변한다. 그리고 무너진 바른 신학을 회복하기 위해 욕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욕의 친구들은 욕의 '말에 잡혀' 위로자의 본분을 잊은 것이다. 욕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받은 듯한 정통 신학을 보수하기 위해 욕을 꾸짖는다.

평소 구약을 읽으며 전통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오던 것들을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보니 그 옛

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역시도 이러한 저자의 열원이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여정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김병모
한국실로영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대한예수교장로회

2025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총장 신혜란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